

다산포럼

대동(大同) 사회와 소강(小康) 사회



승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 1월에 다산연구소가 주관하는 중국 광둥성(廣東省) 인문 기행에 다녀왔다. 광둥성에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문학적 유산이 무수히 많다. 이곳에 유배된 소동파의 유적, 태평천국을 건립한 흥수전의 옛집, 중국의 아픈 상처가 서린 아편전쟁 기념관, 육조(六祖) 혜능(慧能)이 삭발수계(削髮受戒)한 광효사(光孝寺) 등이 있고,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運動)을 이끈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啓超) 그리고 손문(孫文)도 이 고장 출신이다.

강유위와 등소평의 꿈

이 밖에도 광둥성에는 볼거리가 즐비하지만 강유위의 옛집에 들러 그가 설계

한 대동 세계를 다시금 음미해 본 것이 하나의 큰 보람이었다. 강유위(康有爲, 1858~1927)는 당시 서구 열강에 의해 갈거리 찢긴 중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과감한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제자인 양계초(梁啓超, 1873~1929)와 함께 펼친 변법자강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100일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중국의 근대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의 궁극적 이상은 대동 사회의 건설이었다. ‘대동’(大同)이란 ‘예기’(禮記) 예운(禮運) 편에 나오는 대도(大道)가 행해졌던 요순시대의 이상 사회다. 그때에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어서 재산을 공유했기 때문에 권모술수가 없고 도적이 없어 사람들이 대문을 잠그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 말하자면 원시 공산사회인 셈이다.

이 대동 사회에 근거하여 강유위는 더 나아가 국가가 소멸하고 세계가 하나의 통일정부에 의해 통괄되는 사회 즉 계급·인종·남녀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격차도 없으며 가족 제도마저 해체되는 이상 사회를 그렸다. 이런 사회는 역사 시대 이래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유토피아로 공상적 사회주의의 성격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유위가 대동 사회를 그린 것은 당시

중국에는 급박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구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기’ 예운 편에는 대동 사회 다음으로 소강(小康)의 사회를 묘사한다. 이 시대에는 천하가 천자의 사유물이 되고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사유하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때에는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과 같은 성인이 나타나 예의(禮義)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은 또 다른 이상사회였다. 이른바 하·상·주(夏商周) 삼대의 지지(至治)가 실현된 사회였다.

이 소강 사회를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鄧小平, 1904~1997)이다. 그는 1987년에 3단계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1단계(1981~1990)에는 국민의 의식(衣食)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1991~2000)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까지 끌어올리며 21세기 중엽 무렵의 3단계에는 중국을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제2단계를 소강 사회로 명명했다.

실제로 2001년에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10달러를 달성하여 소강 사회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정한 소강 사회여서 2017년의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1세기 중반이 되면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는 청사진을 밝혔다.

시진핑의 공부론(共富論)

등소평은 ‘잘 살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잘 살게 한다’는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웠지만,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 사회를 건설하여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는 시진핑의 구상은 ‘공부론’(共富論)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고려할 때 앞으로 남은 3년 만에 공부론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공부론이 실현되는 ‘전면적 소강 사회’가 ‘예기’에 묘사된 것처럼 질서 잡힌 이상 사회가 될 수 있을지는 더욱 회의적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올 사회는 마르크스가 구상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고 강유위가 꿈꾼 대동 사회가 될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이 문자 그대로 ‘꿈’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청춘 특·특

청년들의 판짓



이건
크로스오버 앙상블 ‘친친클래식’ 대표

신년의 첫 시작이 좋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럽다. 지금껏 재능 기부로 수많은 무대에 올랐지만, ‘동네 청년들과 작당(?)해 꾸민 이번 행사는 남다른 여운을 남겼다.

필자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로스오버 앙상블 ‘친친클래식’ 대표를 맡고 있다. 우리는 최근 광주시 동구 ‘꽃메요양원’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펼쳤다. 재미있는 것은 행사에 앞서 광주에서 활동하는 다른 청년들과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각자의 재능을 나눴다는 점이다. 행사의 발단은 광주에서 청년들을 위

한 복합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동네준인’ 김태진 대표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광주 동부소방서 축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좋은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터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청년은 비단 나뭇만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이 하나 둘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청춘 문화기획자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와 청년과 관련된 문화 기획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알체인지’, 인문학 교육, 기획,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엘리피에브’, 랩 퍼 ‘진펄’씨가 참여하게 됐다. 고맙게도 ‘네고치킨’ 정호웅 대표와 ‘동네호떡’ 정소피아 대표는 각각 치킨과 호떡을 기꺼이 협찬해줬다. 물론,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담당 김광일씨와 예방서무 소방교 김우철, 박효삼, 윤재용 씨 등 소방관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은 모두 음악과 문

화, 기획, 사진, 음식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 친친클래식은 노래를 선보였다. 어른신들이 듣기 쉽고 대중적인 곡들을 준비했다. 그의 각자가 준비한 합창공연과 마술, 장수사 진 활영이 진행됐고, 간단한 소망 교육과 함께 호떡과 치킨을 나눠 먹으면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함께한 광주 청년들이 그동안 재능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게 절대 아니다. 서로가 가진 능력으로 각기 다른 곳에서 나눔 활동을 펼쳤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계기로 모두가 모이네 하니... 우리의 공연을 보신 어른신들은 보여줄 수 있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의 공연을 보신 어른신들은 어떤 이의 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들이다. 기뻐하시든 어머니들을 보면서 행복함과 이 순간의 소중함이 밀려왔다.

광주에서도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체는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요즘 가장 힘들다는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 자체가 지닌 의미도 남다르지 않을까.

팍팍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청년)다. 열정과 의지를 품고 각자의 길을 향해 뛰고 있지만, 아직 형편이 여유롭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도 뜻을 함께하는 청년들이 모이면 그 어느 단체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였던 만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행사가 기대된다. 지금도 다른 청년들이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 그 스타트는 제대로 끊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우리들의 작은 의지와 나눔이 지역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응원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기 고

나주 교육, 혁신이 답이다



김옥기
전남도의원(나주 2)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모와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 나주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960년대 중반 인구 28만 명에 달했던 호남의 옹도 나주는 5년 전 8만6000여명까지 줄었다가 빛가람 혁신도시의 전입 인구에 힘입어 11만 명을 회복하며 비로소 새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빛가람동에 이주한 공기업 직원들은 자녀 동반 이주에 있어 걸림돌을 ‘교육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주와 함께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만 보면 그 우려가 분명 큰

거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나주는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공기업 직원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교육으로 인해 광주 등으로 떠나간 기존 인구의 유턴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우선 명문 고등학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초·중학교도 중요하지만 좋은 고등학교가 설치되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체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먼저 나주는 인문계 중·고등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점이 문제다. 지난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나주의 인구는 11만 명인데 15개의 중학교가 있고, 학생은 2256명으로, 1개 학교당 평균 150명이 다니고 있다. 이를 도내 다른 시와 비교해보면 목포의 경우 인구 23만5000명에 16개 중학교, 학생 8124명으로 1개 학교당 평균 507명, 여수는 인구 28만7000명에 24개 중학교, 학생 8249명으로 1개 학교당 평균 344명, 순천은 인구 28만 명에, 21개 중학교, 학생 9198명으로 1개 학교당 평균 438명 등이다. 특히 나주는 15개 중학교 중 재학생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그 절반인 7곳에 이른다는데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자유 학기가 법제화된 교육 과정 운영의 애로 외에도 시설 보수나 기자재 확

충 면에서 소외되고 있어 예산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다보니 고등학교 신입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관내 11개 고등학교(특수학교 제외)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1160여명인데 비해 중학교 3학년 졸업생수는 750여 명에 불과, 무려 400명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교 중 전남과학교, 외국어고, 미용고, 나주공고, 호남원예고, 나주상고 등은 모집 전체 정원은 563명이나 실제로는 496명(88%)이 합격자로 선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신입생의 출신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나주 175명(35%), 전남 155명(31%), 광주 139명(28%), 그 외 타 시·도 13명(3%) 등이다. 광주를 제외하면 타 시도 출신 학생이 드물다는 점에서 나주에 자리한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등학교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역 내에서는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는 소수의 인적 자원에 대해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4차 산업

혁명 시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잠재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꿈과 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수요에 맞춰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명문고, 특수목적고는 물론 연구 기관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한 특성 학교, 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등이 그것이다. 최근 특성화고인 나주공고 졸업생의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소식이나 전남미용고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소식은 나주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주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학부모가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 현 정부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가 조성되는 혁신 도시 인구에 유지하고 이를 위한 명문고를 만들어 그子弟들을 놓아야 한다.

나주의 도약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육 체계의 혁신과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체계의 수립이 지역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社 說

정기 국제선 재취항 무안공항 활성화되나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국제노선이 아예 끊겨 이름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했던 무안공항에 다음 달 중국·일본·필리핀을 오가는 정기 노선이 동시에 열린다. 국제노선 다변화에 따라 올해 연간 이용객도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에는 다음 달 말부터 중국 상하이와 일본 기타큐슈, 필리핀 보라카이 및 세부에 오가는 4개 노선, 9편의 항공기가 정기 취항한다. 이는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 관광객 격감으로 베이징 노선이 지난해 10월 중단돼 ‘정기선 없는 전세계 국제공항’으로 전락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동방항공은 다음달 28일부터 무안공항~상하이 노선에 주 2회 재취항한다. 일본 기타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비정기 노선은 주 3회 정기 노선으로 전환된다.

팬퍼시픽의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정기 노선도 각각 주 2회 운항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도가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에 편중됐던 국제노선의 한계를 점검하고 운항 노선 다변화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이다. 야간 운항이 가능한 ‘잠들지 않는 공항’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해외 설명회와 직항 노선 개설 협의 등 적극적인 세일즈로 동남아와 일본의 국제선을 유지한 것이다. 올 들어 국제선 탑승률이 향상되면서 무안공항 이용객도 전년보다 30%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다.

무안공항은 최근 광주 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포함되면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잡았다. 특히 광주시가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 동시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정 신호가 커진 상태다. 전남도는 광주와 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항 세일즈를 강화해 올해를 무안공항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과하는 이윤택 떠나는 고은...‘미투’ 후폭풍

최영미(57) 시인의 성추행 고발 시 ‘괴물’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은(85) 시인이 경기도 수원시가 마련해 준 광고산 자락의 창작 공간인 ‘문화 향수의 집’을 떠난다. 한편 한국극작가협회는 최근 연출가이면서 극작가인 이윤택(67) 씨를 ‘회원에서 제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윤택 씨는 지난 14일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추가 성폭력 폭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이어졌다. 심지어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승태(42) 극단 나비꿈 대표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해시태그와 함께 “목인하고 있다는 게 죄스러워 간단히 있었던 사실만 올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여기엔 이윤택 씨가 발생 연출하자며 불려서 온몸을 만졌다는 폭로가 담겼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담은 피해

자들의 증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십 년에 걸쳐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이 씨는 결국 어제 공개 사과했지만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단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 배경에는 배우 개개인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는 한국 연극에서 성폭력 폭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았다. 이윤택이 수상한 모던 상 위소, 진정성 있는 참여와 사과, 사법 절차 병행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당연히 이행돼야 할 조치들이다.

無 等 鼓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아직도 일부에선 구정(舊正)이라 부르는 음력설이 지났다. 설 연휴엔 많은 사람이 지인들에게 1월1일 신정(新正)에 이어 새해 인사를 한다. 두 번 새해를 맞는 것이다.

설은 그동안 부침(浮沈)의 역사를 겪었다. 고종이 1896년 1월1일 태양력을 공식 역법으로 채용하면서 설은 폐지되고, 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등이 그것이다. 최근 특성화고인 나주공고 졸업생의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소식이나 전남미용고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소식은 나주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주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학부모가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 현 정부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가 조성되는 혁신 도시 인구에 유지하고 이를 위한 명문고를 만들어 그子弟들을 놓아야 한다.

나주의 도약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육 체계의 혁신과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체계의 수립이 지역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설을 빼는 대신 신정에는 3일간 쉬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도 극장 광고물에 ‘구정 프로’라는 문구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구정 때 임시 열차의 증편도 못하게 했다. 설을 앞둔 떡방앗간 조업 단속도 강화했다. 이 같은 기조는 전두환 정권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1984년 12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구정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발표했고 다음해 1월 대통령령이 개정돼 처음으로 음력설은 공휴일이 됐다. 다만 명칭은 ‘민속의 날’이었다. 음력설이 본래 이름 찾은 것은 ‘6월 쉬도록 하고 학교에는 10일가량의 방학을 주는 반면 구정은 일부러 조업을 강요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빠지지 못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구정 압살 정책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음력설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일제는 강제적으로 방앗간의 조업을 금지해 상차림에 필요한 떡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설빔을 입은 아이들에게 떡을 뿌렸다는 기록도 보인다.

구정은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푸대접을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음력 /박지식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